논리연구 16-2(2013) pp. 189-231

더미의 역설과 초평가주의*

이 진 희

【국문요약】 필자는 이 글에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초평가주의에 대한 결정적 반박이 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반적으로 초평가주의의 타당성으로 인정되는 전체적 타당성이 아닌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 의미론에 적합한 표준적 타당성임을 보이고, 이에 근거해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기초하는 'D-도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체적 타당성은 고전적 명료화를 통해 모호성을 이해하는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지만, 국지적 타당성은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성, 특히 '분명함'을 나타내는 D-연산자의 의미론적 특성을 정확히 포착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전략은 초평가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초평가주의가 고전논리학을 보수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파라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더미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주요어】 초평가주의, 더미의 역설, 모호성, 논리적 귀결, 파라의 역설, 윌리엄슨

접수일자: 2013.04.07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3.04.30 게재확정일: 2013.05.31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A00204]

1. 서론

더미의 역설(sorites paradox)에 대한 다양한 해결 전략들 중 초평가주의(supervaluationism)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고전논리학의 중요한 추론규칙들의 보존에 있다. 그래서 초평가주의 논리학에서는 연역정리(deduction theorem)나 대우(contraposition)와 같은 추론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윌리엄슨(Williamson)의 비판과[1], 초평가주의에 따를 경우 더미의 역설과 유사한 또 다른 역설이 발생한다는 파라(Fara)의 주장은[2] 초평가주의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이다.

고전논리학의 적절성을 떠나서, 초평가주의 논리학이 연역정리나 대우규칙 같이 직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추론규칙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진리 대신 논리학을 선택하였다는 초평가주의의 장점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3] 파라의 역설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초평가주의는 의미론적 간극(semantic gab)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더미의 역설을 해결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파라의 역설은 이러한 의미론적 간극을 받아들일 경우 명백하게 T인 대상 a_1이 m-1번 분명하게 T이면서m-1번 분명하게 T인 것이 아닌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라의 역설이 성립한다는 것은 초평가주의에

1) 윌리엄슨이 제시한 반례를 앞으로는 간단히 '윌리엄슨의 반례'라고 부르고자 한다. Williamson (1994), pp. 151-152.

2) 파라가 제시한 역설은 실제로 라이트(Wright)가 먼저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파라는 라이트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역설을 재구성하였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파라가 제시한 역설을 간단히 '파라의 역설'(Fara's Paradox)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Fara (2003, 2011), Wright (1992) 참조.

3) 예를 들어, 파인(Fine)은 초평가주의를 '진리에서는 차이를 만들고, 논리에서는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의 '차이'란 물론 고전적 개념들과의 차이이다. Fine (1975), p. 284.

기초해서 더미의 역설을 해결하지 못함을 함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은 모두 초평가주의 논리학에서 '분명함'을 나타내는 D-연산자의 도입규칙인 'ϕ ⊨ Dϕ'를 전제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국지적 타당성(local validity)이라는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개념에 근거해서 위의 비판들에 대응하고자 한다. D-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전략들 중 필자가 국지적 타당성에 근거하는 이유는, 그것이 초평가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D-도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이며, 그 과정에서 초평가주의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지적 타당성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도입되는 이유는 초평가주의의 독특한 의미론 때문이다. 초평가주의는 모호한 용어가 포함된 언어 L을 그것의 허용가능한 고전적 명료화(precisification)를 통해 이해하는 전략이다.[4] 그래서 초평가주의에는 각각의 명료화에 적용되는 고전적인 국지적 참(local truth)과 L에 적용되는 의미론적 간극을 허용하는 초참(super truth)이라는 두 개의 진리 개념이 존재하고, 이러한 진리 개념에 상응하는 두 개의 타당성 개념이 존재한다. 하나는 초참에 의해 정의되는 전체적 타당성(global validity)이며, 다른 하나는 국지적 참에 의해 정의되는 국지적 타당성이다.[5] 그런데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기초하는 D-도입은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성립하지만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윌리엄슨과 파라 모두 전체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임을 주장하

4) 위에서 말하는 '명료화'란 모호한 용어를 분명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명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명료화' 대신 '지점'(poi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5) '전체적 타당성'과 '국지적 타당성'이라는 용어는 윌리엄슨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Williamson (1994), p. 148.

면서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초평가주의자들 역시 전체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임을 받아들인다. 그들이 국지적 타당성이 아니라 전체적 타당성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초참의 보존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6)]

이러한 국지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필자는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의 의미론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는 타당성일 뿐 아니라, 국지적 타당성에 의존해서도 초참의 보존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는, 전체적 타당성은 초평가주의 의미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D'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적 타당성에 기초할 경우 D의 추론적 기능이 그것과 의미론적 성격이 다른 초참과 동일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는 것에 주로 근거한다. 이에 반해, 국지적 타당성은 D를 포함한 초평가주의의 의미론적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바르찌(Varzi)가 주장하듯, 우리는 초참을 나타내는 **T**를 새로운 연산자로 도입하여 국지적 타당성에서도 초참의 보존을 포착할 수 있다.[7)] 그래서 초평가주의의 의미론에 부합함은 물론 그것에 근거해서 초참의 보존 역시 설명할 수 있는 국지적 타당성을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6) 위의 비판은 주로 윌리엄슨에 의해 제시된 것이며, 대표적인 초평가주의자인 키프(Keef) 역시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Fara (2011), p. 233, Keef (2000), p. 174, Williamson (1994), pp. 147-149.

7) 이러한 필자의 전략은 전체적 타당성을 국지적 타당성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6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필자의 초고에 이 부분이 명료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키가 크다'를 나타내는 술어 T와 구분하기 위해 초참을 나타내는 **T**는 굵게 표기하였다. Varzi (2007), p. 665.

정리하면,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임을 밝힘으로써 초평가주의가 고전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미의 역설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초평가주의와 초참

일반적으로, ‘대머리’, ‘키가 큼’과 같은 모호한 용어는 그것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영역을 가질 뿐 아니라, ‘더미의 역설’이라고 알려진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미의 역설은, ‘더미’와 같은 모호한 용어는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과 적용되지 않는 대상 사이에 절단점(cutting point)을 확정할 수 없다는 직관에 기초한다.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더미의 역설은 모호한 용어 P가 적용되는 일련의 대상들 a_1, a_2, … , a_n에 대해, 아래의 전제(1)과 전제(2)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결론(3)이 성립하는 역설을 말한다.

전제(1) $P(a_1)$
전제(2) $(x)(P(x) \rightarrow P(x'))$ (x' 는 x의 후자이다.)
결론(3) $\neg P(a_n)$

위의 논증에서 전제(1)과 결론(3)이 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8] 그래서 더미의 역설을 해결하려는 전략들은 대부분 전제(2)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특히

8) 위의 논의에서 a_1이 P의 명백한 사례라는 것과 a_n이 ¬P의 명백한 사례라는 것은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은 모호한 용어는 그것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영역뿐 아니라 분명한 적용 사례를 갖는다는 것에 의해 지지된다.

a_n에 대해서는 P가 적용되면서 그것의 후자에 대해서는 P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a_n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모아지며, 이것이 곧 위에서 말한 절단점의 문제이다.

모호성과 더미의 역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단점의 문제는 경계영역에 대한 이해와 직접 연관된다. 절단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경계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절단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경계영역이 실제로 존재함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영역은 모호한 용어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용어 P가 모호하다는 것은 그것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영역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적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호성과 더미의 역설에 대한 해결 전략은 경계영역에 대한 적절한 설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영역에 대한 설명에서 모호성에 대한 이론들의 궁극적 차이가 발생한다.[9]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경계영역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계영역은 두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경계영역은 단순히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영역이 아니라 '분

9) 경계영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는, 경계영역에 포함된 대상들에 대한 진술들에 참도 거짓도 아닌 새로운 값을 부여하는 전략과, 경계영역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전략들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클린(Kleen)의 3치논리나 퍼지논리와 같은 비고전논리학에 의존하는 전략들이 있으며, 후자는 고전논리학을 유지하는 윌리엄슨이나 소렌센(Sorensen)의 인식주의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초평가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두 견해들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초평가주의는 참도 거짓도 아닌 진술이 존재한다는 의미론적 간극을 인정하면서하면서도 고전논리학의 추론규칙들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모호성과 관련된 전통적 입장들에 대해서는 Keef and Smith (1999)를 참조할 수 있다.

명하게 참도 아니고 분명하게 거짓도 아닌' 영역으로, 앞에서 언급한 D에 의해 '$\neg D\phi \wedge \neg D\neg\phi$'로 정의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10] 다른 하나는, 적어도 현상적으로라도 고차모호성(higher order vagueness), 즉 경계영역의 경계영역, 경계영역의 경계영역의 경계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고차모호성은, 비록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모호한 용어는 경계영역을 가질 뿐 아니라 경계영역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직관을 반영한 것으로, 모호성에 대한 이론들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현상들 중 하나이다. 이 점은 더미의 역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더미의 역설의 전제(2)는 모호한 용어 P가 적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는 절단점 k가 존재하지 않음을 함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차모호성(first order vagueness)만 존재할 뿐 고차모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호한 용어 P가 적용되는 영역과 적용되지 않는 영역, 그리고 그것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됨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호성을 단순한 부분적 정의(partial definition)를 통해 이해하는 것일 뿐더러 k까지는 P가 적용되지만 k+1부터는 P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절단점 k가 존재함을 함축하는데, 그 경우 전제(2)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k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호한 용어가 적용되는 경계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직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고차모호성은 모호한 용어 P에 대해 P인 것과 P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절단점뿐 아니라 P와 P의 경계영역을 구분하는 절단점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이 과정은 반복된다는 직관을 반영하는 것이

10) 위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D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경계영역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립적 정의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D를 의미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인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11] 물론 이러한 고차모호성의 존재 및 그것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했듯이, 적어도 고차모호성은 모호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모호성에 대한 모든 이론들은 경계영역 및 고차모호성에 대한 설명을 더미의 역설에 대한 해결 전략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12]

이 글에서 논의하는 초평가주의는 의미론적 간극을 통해 경계영역과 고차모호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초평가주의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미론적,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체적 설명에서 초평가주의자들 사이에 다양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가 전체적 타당성과 국지적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장에서 초평가주의자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초평가주의적 의미론과 논리학의 기본

---

11) 고차모호성과 관련된 직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일차모호성을 나타내는 경계영역 $B^1\phi$는 '$\neg D\phi \wedge \neg D\neg\phi$'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차 경계영역 $B^2\phi$는 '$\neg DD\phi \wedge \neg D\neg D\phi$'인 영역으로 정의되며, 같은 방식으로 n차 경계영역인 $B^n\phi$를 '$\neg D^n\phi \wedge \neg D\neg D^{n-1}\phi$'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고차모호성은 그것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을 촉발하는 복잡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n차 모호성을 위에서와 같이 ϕ와 $B^{n-1}\phi$ 사이의 경계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D^n\phi$와 $B^{n-1}\phi$ 사이의 경계영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차모호성의 구체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관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차모호성을 정의하였다. 고차모호성의 구체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필자의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12) 모호성과 관련된 기본적 직관으로 라이트는 (1) '근절할 수 없는 직관'(ineradicability intuition)이라고 부르는 경계영역 혹은 사례에 대한 설명과 (2) 더미의 역설과 직접 관련된 '이음매 없음의 직관'(seamlessness intuition)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근절할 수 없는 직관'은, 모호한 용어 P는 단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의 경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음매 없음의 직관'은 '관용(tolerance)의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절단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Wright (2011), pp. 523-527.

구조를 제시하고서,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초평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제거할 수 없는 애매성이라고 생각한다.[13] '더미'와 같은 용어가 경계영역을 갖는 이유는 '더미'의 모호성을 제거한, 즉 '더미'의 적용 여부를 분명하게 제시한 다양한 고전적 명료화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이 표준적 명료화인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7cm인 철수에 대해 "철수는 키가 크다."가 참도 거짓도 아닌 이유는 '키가 큼'의 기준을 w_1(176cm), w_2(177cm), w_3(179cm) 등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명료화에 따라 그것이 참도 되고 거짓도 되지만, w들 중 어떤 것이 '키가 큼'에 대한 표준적 명료화인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4] 그런데 '더미'나 '키가 큼'과 같은 모호한 용어는 경계영역뿐 아니라 분명한 사례 역시 갖는다. 즉 어떤 명료화에서도 2m인 대상에 대해서는 '키가 큼'이 적용되어야 하며, 150cm인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초평가주의자들은 '허용가능성'(admissib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명료화를 제한한다. 초평가주의 안에서도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15]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16] 하나는, P에 대한 명료화는 우리의 일상적 언어 사용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키가 큼'에 대한 어떤 명료화에서도 2m인 대상을 그것의 외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명백하게 참인 진술은 모든 명료화에서 참이어야 하며, 명백하게 거짓인 진술은 모든 명료화에서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호한 용어의 경우에도 분석적 관계와 같은 명백한 관계는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13) Fine (1975), p. 136.

14) 논의의 편의를 위해 177cm가 '키가 큼'의 경계영역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였다.

15) Varzi (2007), pp. 634-640 참조.

16) Fara (2011), pp. 227-228 참조.

특히 일반적으로 음영적(penumbral) 관계라고 일컫는 경계영역에 있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75cm인 철수를 키가 큰 것으로 인정한 어떤 명료화에서도 176cm인 민수 역시 키가 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철수가 키가 크다면, 민수도 키가 크다.”는 어떤 명료화에서도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료화는 모호한 용어 P의 의미론적 간극을 고전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 즉 P의 적용 범위를 다양한 허용가능한 명료화를 통해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가 큼’에 대한 허용가능한 명료화가 다양해지는 이유는 ‘키가 큼’이 분명하게 적용되거나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w_1(176cm), w_2(177cm), w_3(178cm)와 같이 ‘키가 큼’의 경계영역에 다양한 절단점을 제시하는 것, 즉 ‘키가 큼’의 적용 범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영역으로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명료화에는 고전적 의미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초평가주의는 모호한 용어를 포함한 언어 L의 의미를, 그것의 고전적 확장인 허용가능한 명료화 w_1, w_2, … , w_n을 통해 이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평가주의에 기초할 경우 우리는 두 개의 진리 개념을 갖는다. 하나는 L 자체에 적용되는 진리 개념인 초참이며, 다른 하나는 각 w에 적용되는 국지적 참이다.[17] 이러한 초참은 국지적 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18]

---

17) 위의 설명은 특정한 초평가주의, 특히 ‘초참’을 실제적 참(actual truth)과 같이 해석하는 특정한 초평가주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논의는 초평가주의의 최소 가정, 즉 초평가주의에서의 의미론적 평가는 각 명료화에 기초한다는 것과 초참은 모든 명료화에서의 참이라는 것만을 전제한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 역시 이러한 초평가주의의 기본적 가정에만 기초한다. 또한 앞으로의 논의에서 ‘명료화’ 및 ‘w’는 ‘허용가능한 명료화’를 의미한다.

18) ϕ가 w에서 참이라는 것은 곧 ϕ가 w에서 국지적 참이라는 것이다. 국지적 참의 특성이 w에서 평가되는 고전적 참이기 때문에, ‘w에서 국지적 참’과

ϕ는 초참이다. iff 허용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국지적) 참이다.
ϕ는 초거짓이다. iff 허용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국지적) 거짓이다.

그래서 초평가주의에서 ϕ의 의미론적 값은 그것의 고전적 명료화에서의 값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들의 특성은 다르다. 고전적 명료화에 적용되는 국지적 참은 고전적 진리 개념이지만, 초참은 의미론적 간극을 갖는, 그래서 이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리 개념이다. 이 점은 어떤 진술 ϕ가 w_1에서는 참이지만 w_2와 w_3에서는 거짓이면 ϕ 자체는 초참도 초거짓도 아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초평가주의는 고전적 진리 개념을 통해 비고전적 진리 개념을 정의하는 독특한 의미론적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이 고전 논리학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의미론적 간극을 인정하는 초평가주의의 설명 구조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평가주의의 특성은 이가율과 배중률 사이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미 본 대로 초평가주의의 참은 초참이며, 초참은 의미론적 간극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평가주의를 따를 경우, '$\phi \vee \neg\phi$'가 거짓인 어떤 고전적 명료화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래서 배중률은 보존된다. 다시 말해, 초평가주의에서는 진술 ϕ가 w_n에서는 참이고 w_m에서는 거짓일 경우 ϕ나 ¬ϕ가 모두 초참도 초거짓도 아닌 미결정이지만, 각각의 w에서의 평가는 고전적이기 때문에 '$\phi \vee \neg\phi$'는 모든 w에서 참, 즉 초참이며, 그래서 배중률은 성립한다. 유사한 근거에서,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논리적 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것이 초평가주의가 진리 대신 논리학을 보존하는 전략이라고 이해되는 이유이며, 더미의 역설에 대한 초평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기도 하다.

'w에서 참'을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더미의 역설은 하나의 모래알이 ‘더미’와 ‘더미 아님’을 구분하는 절단점이 될 수 없다는 직관에 근거한다. 그래서 n개의 모래알이 더미라면 n+1개의 모래알 역시 더미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더미 역설의 결론, 즉 충분한 수의 모래알 역시 더미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더미의 역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즉 더미의 역설과 관련해서, ‘더미’와 ‘더미 아님’은 하나의 모래알에 의해 구분되지 않지만, 더미의 역설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더미’와 ‘더미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평가주의에 따를 경우, 이러한 두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초평가주의 의미론에서는, “더미와 더미 아님을 구분하는 절단점이 존재한다.”는 양화문장이 참이라는 것이 특정한 절단점 k가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w에서 위의 문장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n개의 모래알이 ‘더미’와 ‘더미 아님’을 구분하는 절단점이다.”의 대입례들 중 특정한 하나가 모든 w에서 참일 필요는 없다. 각 w에서 n의 값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n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의 문장은 초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평가주는 모호한 용어를 포함하는 언어의 의미를 그것의 허용가능한 고전적 명료화를 통해 이해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초평가주의 논리학은 이러한 초평가주의 의미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초평가주의 의미론과 논리학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명료화와 모호한 언어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명료화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논리적 도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후자는 ‘분명함’을 나타내는 D를 통해 제시되는데, 이러한 D와 관련해서는 초평가주의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것이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개념과 함

께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D와 관련된 초평가주의 의미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3. D-연산자와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초평가주의에는 초참과 국지적 참 이외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도입된다. 그것은 '분명함'을 나타내는 D-연산자이다. D가 도입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경계영역 및 고차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평가주의는 의미론적 간극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경계영역과 고차모호성을 설명하는 의미론적 전략이기 때문에, 의미론적 간극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인 D는 초평가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산자이다. 초평가주의의 다른 연산자들처럼 D 역시 국지적 참에 의해 정의되지만, D의 의미론적 성격에 대해서는 초평가주의자들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특히 D를 초참의 대상언어로 이해할지, 초참과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지는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다.[19]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D는 초참 및 다른 연산자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우선 D는 초평가주의 논리학의 대상언어이다. 그런데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초평가주의는 모호한 언어 L의 의미를 그것의 고전적 명료화인 w에 기초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L에 직

---

19) 'D'가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D'가 도입된 이유에 기초한다. 'D'는 참도 거짓도 아닌 미결정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it is true that'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breros (2011a), p. 840, Fara (2003), pp. 199-200, Williamson (1995), pp. 176-182.

접 적용되는 초참과는 달리 D의 의미론적 값은 각각의 w에서 평가될 뿐 아니라, w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D는 국지적 참과는 구분되는 특성인 ‘분명함’을 나타내는 연산자이므로 특정한 w_n에 한정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초평가주의자들은 양상논리학의 ‘필연성’과 유사하게 D를 정의한다. 즉 w_n에서 접근가능한(accessible) 모든 w에서 ϕ가 참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만 Dϕ가 w_n에서 참이라고 정의한다.[20] 그러므로 모든 w에서 참인 ‘초참’과 달리 D는 ‘접근가능성’을 포함한 w들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는 연산자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초평가주의 논리학의 연산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D를 포함한 언어 L에 대한 초평가주의적 해석은 <W, R, v> 즉 허용가능한 명료화 w들의 집합 W, w들 사이의 접근가능성을 나타내는 이항관계 R, 각 w에 속한 진술들에 대한 진리값 부여 함수 v로 구성된다.[21] 그런데 각 명료화에서의 진리값 부여 함수 v는 고전적이다. 그래서 각 w에서의 연산자들은 그것의 고전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W, R, v>에 의해 D를 포함한 초평가주의 논리학의 연산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22]

---

20) 이러한 D에 대한 정의에 기초해서 우리는 고차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D의 반복 역시 정의할 수 있다. Dϕ는 w_n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이듯, DDϕ는 w_n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Dϕ가 참이라는 것이다.

21) 물론 W는 공집합이 아니다.

22) 학자들에 따라 용어법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코브레로스(Cobreros)는 R을 ‘접근가능성’ 대신 앞에서 언급한 ‘허용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코브레로스가 ‘접근가능성’ 대신 ‘허용가능성’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가 제시하는 ‘지역적 참’ 개념과 관련되어 있지만, R과 관련된 ‘허용가능성’은 w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필자가 말하는 ‘접근가능성’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의 정의는 코브레로스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Cobreros (2011b), p. 209.

'$\phi \lor \psi$'는 w에서 참이다. iff w에서 ϕ가 참이거나 ψ가 참이다.
'$\phi \rightarrow \psi$'는 w에서 참이다. iff w에서 ϕ가 거짓이거나 ψ가 참이다.
$\neg\phi$는 w에서 참이다. iff w에서 ϕ는 거짓이다.
Dϕ는 w에서 참이다. iff w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명료화 w′(wRw′)에서, ϕ가 참이다.

위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평가주의 논리학의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각 w에서 고전적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w에서의 평가에 기초해서 L의 의미론적 값이 결정된다. 이 점은 2장에서 제시한 배중률과 이가율의 구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산자들과 달리 D는 w들 사이의 접근가능성, 즉 wRw′을 기본적 요소로 갖는 것으로, 그것의 추론적 기능은 다양한 양상 공리체계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23]

그러나 D에 적합한 양상적 공리들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소한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KT뿐 아니라 D의 의미에 대한 분석에 따라 D와 관련된 다양한 추론규칙들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D의 추론규칙은 그것의 의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D에 대한 단일한 초평가주의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D의 논리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초평가주의에는 초참의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 타당성과 각 w에서의 참의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타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개의 타당성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평가주의 의미론이 국지적 참에 의존하지만 그것의 참,

---

23) 위의 주장이 D와 관련된 공리선택이 완전히 임의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제한 조건은 D의 추론규칙이 고차모호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초평가주의적 참은 초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의 필연적 보존이라는 고전적 타당성 개념에 부합하는 두 개의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혹은 논리적 귀결 개념이 존재한다. 우선 국지적 타당성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24)]

> 어떤 진술 ϕ가 진술들의 집합 Γ의 국지적 귀결(local consequence)이다($\Gamma \vDash_l \phi$). iff 모든 해석에서(혹은 필연적으로), Γ에 속한 모든 진술이 참인 모든 w에서 ϕ 역시 참이다.

이러한 국지적 타당성 개념은 모호한 용어의 의미를 각 명료화, 즉 w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초평가주의 의미론에서의 자연스러운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초참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경우, 초평가주의자들은 국지적 타당성보다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전체적 타당성을 초평가주의의 타당성으로 받아들인다.

> 어떤 진술 ϕ가 진술들의 집합 Γ의 전체적 귀결(global consequence)이다($\Gamma \vDash_g \phi$). iff 모든 해석에서(혹은 필연적으로), Γ에 속한 모든 진술이 모든 w에서 참이라면, ϕ 역시 모든 w에서 참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체적 타당성과 국지적 타당성은 일치하지만, 이 두 개념의 적용 범위가 같지는 않다. 결론이 하나 이상인 논증을 제외하면, 국지적으로 타당한 논증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는 간단히 입증될 수 있다. ‘Γ

24)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에 대한 정의는 코브레로스를 참조하였다. Cobreros (2011b), pp. 209-210.

$\nvDash_g$ φ'라는 것은 Γ에 속한 모든 진술이 초참이지만 φ가 초참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Γ에 속한 모든 진술이 참이지만 φ는 거짓인 w_n이 존재함을 함의하며, 그래서 'Γ $\nvDash_l$ φ' 역시 성립하기 때문이다. 후자, 즉 전체적으로 타당하지만 국지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의 대표적인 사례는 D-도입이다. φ가 초참이라면 φ는 모든 w에서 참이므로 Dφ가 거짓인 w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φ $\vDash_g$ Dφ'는 성립한다. 그러나 φ가 w_n에서는 참이지만, w_n으로부터 접근가능한 w_m에서는 φ가 거짓일 수 있으며, 이 경우 w_n에서 φ는 참이지만 Dφ는 거짓이기 때문 'φ $\vDash_l$ Dφ'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D-도입을 수용하는 독립적 이유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D를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D를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으로 이해할 경우 D-도입은 정당화된다. D가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임을 받아들이면서 D-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주장 φ가 참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참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25] 그리고 이러한 D에 대한 해석은 D-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지적 타당성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D가 의미론적 미결정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D와 초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D는 w들 사이의 '접근가능성'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모든 w에서 참'으로 정의되는 초참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D나 초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초참이 D의 대상언어적 표현임을 받아들이면서도 D-도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26]

D와 초참,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

25) 각주 19)참조. 특히 Fara (2003), pp. 199-200 참조.

26) 실제로 코브레로스는 D가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임을 인정하면서도 D-도입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초참을 지역적 참(regional truth)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도 한다. Cobreros (2011a, 2011b) 참조.

기본적 이유는 초평가주의가 그 안에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이론이라는 것에 있다. 초평가주의자들 사이에는 타당성 개념뿐 아니라 초평가주의의 핵심 요소인 명료화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명료화를 언어 L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언어 L을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각 w에 대응하는 다양한 언어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언어 L과 w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w에 의해 L이 정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L이 w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초참이나 초평가주의의 논리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평가주의는 모호한 용어가 포함된 언어를 그것의 허용가능한 고전적 명료화를 통해 이해하는 전략으로, 초평가주의의 의미론은 w에 기초한다는 것, 그리고 초평가주의에서의 참은 초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초평가주의 논리학은 w 및 w들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공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

3장에서의 논의대로, 전체적 타당성에 의존할 경우 D-도입은 정당화된다. 그리고 굳이 이러한 가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Dϕ가 초참이라는 것으로부터 ϕ가 초참이라는 것은 쉽게 정당화된다. 그래서 ϕ와 Dϕ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D\phi \vDash_g \phi,\ \phi \vDash_g D\phi$$

27) Varzi (2007), pp. 634-640 참조.

물론 그렇다고 D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ϕ가 w_n에서 참이지만, w_n에서 접근가능한 어떤 w에서는 ϕ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ϕ가 참이면서 $D\phi$는 거짓인 w_n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w_n에서 '$\phi \rightarrow D\phi$'는 거짓이기 때문에, '$\phi \vDash_g D\phi$'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vDash_g \phi \rightarrow D\phi$'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초평가주의에서 연역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윌리엄슨은 대우, 양도논법, 귀류가 성립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28] 이러한 윌리엄슨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phi \vDash_g D\phi$'이지만 '$\nvDash_g \phi \rightarrow D\phi$'
2. '$\phi \vDash_g D\phi$'이지만 '$\neg D\phi \nvDash_g \neg\phi$'
3. '$\phi \vDash_g D\phi \vee D\neg\phi$', '$\neg\phi \vDash_g D\phi \vee D\neg\phi$'이지만 '$\nvDash_g D\phi \vee D\neg\phi$'
4. '$\phi \wedge \neg D\phi \vDash_g \bot$'이지만 $\nvDash_g \neg(\phi \wedge \neg D\phi)$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윌리엄슨의 반례는 모두 D-도입과 관련된 것들이다.[29] 예컨대, 대우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phi \vDash_g D\phi$'는 성립하는 반면 ϕ가 어떤 w에서는 참이고 다른 w에서 거짓일 경우 $\neg D\phi$는 초참이지만 $\neg\phi$는 초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논증은 모두 고전논리학적으로 타당한 논증일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의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초평가주의가 고전성을 유지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위의 반례가 성립한다는 것은 초평가주의가 논리학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을 요구

---

28) Williamson (1994), pp. 151-152.

29) D-도입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귀류의 경우에도, '$\phi \wedge \neg D\phi \vDash_g \bot$'가 성립한다는 것은 ϕ와 $\neg D\phi$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D-도입과 같은 주장이다.

함을 함의하는데, 이것은 논리학의 보수적 보존이라는 초평가주의의 중요한 장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파라의 역설 역시 D-도입에 의존해서 구성된다. 파라의 역설은 D-도입과 의미론적 간극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 더미의 역설과 관련된 허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론적 간극을 허용하는 초평가주의에서 D-도입을 허용하면 파라의 역설이 성립한다. 이러한 파라의 역설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미론적 간극을 더미의 역설을 구성하는 대상들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간극원리를 얻을 수 있다.[30]

$(DT(x) \wedge D\neg T(y)) \rightarrow \neg R(x, y)$ (R: 더미의 역설의 관계, T: 키가 큼)

간극원리란 x가 분명하게 T이면서 y가 분명하게 T가 아니라면, x와 y는 T와 관련된 더미의 역설을 구성하는 대상들의 연쇄가 아니라는 것이다.[31] 그리고 이러한 간극원리를 고차모호성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미의 역설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들 x에 대해 아래와 같이 D^nT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간극원리를 얻는다.[32]

$DD^nT(x) \rightarrow \neg D\neg D^nT(x')$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된 간극원리와 D-도입을 받아들일 경우, 더미의 역설의 관계 R을 만족하는 m개의 대상들의 나열에서 T의 명백한 사례인 a_1이 $D^{m-1}T(a_1)$이면서 동시에 $\neg D^{m-1}T(a_1)$이라는 모순이

30) Fara (2003), p. 198.
31) 위의 간극원리는 '$(x)(DT(x) \rightarrow \neg D\neg T(x'))$'로 표현되기도 한다. 물론 x'는 x의 후자이다. Fara (2011), p. 225.
32) Fara (2003), p. 199.

발생한다는 것이 파라의 역설이다. 이러한 파라의 역설이 구성되는 과정은 그녀가 제시한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3)]

$$
\begin{array}{llllll}
2.5\text{m.} & \cdots\cdots\cdots\cdots & & & & 1.5\text{m.} \\
T(a_1) & & & & & \neg T(a_m) \\
\downarrow & & & & & \downarrow \\
 & & & & \neg DT(a_{m-1}) \leftarrow & D\neg T(a_m) \\
 & & & & \downarrow & \\
 & & & \neg D^2T(a_{m-2}) \leftarrow & D\neg DT(a_{m-1}) & \\
 & & & \downarrow & & \\
 & & & D\neg D^2T(a_{m-2}) & & \\
 & & [\ldots] & & & \\
D^{m-1}T(a_1) & \neg D^{m-1}T(a_1) & & & &
\end{array}
$$

위의 그림의 세로 방향 화살표는 D-도입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로 방향 화살표는 일반화된 간극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neg T(a_m)$으로부터 D-도입과 간극원리를 m-1번 적용하여 $\neg D^{m-1}T(a_1)$이 도출되는 반면, $T(a_1)$로부터 D-도입을 m-1번 적용해서 $D^{m-1}T(a_1)$ 역시 도출된다는 것이다. 즉 '키가 큼' T의 더미의 역설을 구성하는 m개의 대상들의 나열들 중 T가 분명하게 적용되는 2.5m의 a_1이 m-1번 명백하게 T이면서 동시에 m-1번 명백하게 T인 것은 아니라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론적 간극을 인정하는 초평가주의자들이 간극원리를 포기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고차모호성의 존재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파라의 역설이 성립한다면 초평가주의는 더미의 역설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 전략이라고

33) 위의 그림은 파라가 제시한 것을 코브레로스가 좀 더 보기 좋게 다듬은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Fara (2003), p. 204, Cobreros (2011b), p. 212.

할 수 없다. 파라의 역설이 보여주는 것은 더미의 역설에 초평가주의 논리학을 적용할 경우 $D^{m-1}T(a_1)$이면서 $\neg D^{m-1}T(a_1)$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의 다양성

4장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은 모두 D-도입에 근거하는 것이며, D-도입은 전체적 타당성을 전제해야 성립한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타당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지적 타당성을 받아들여야만 D-도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코브레로스는 초참 대신 지역적 참(regional truth)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D-도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코브레로스의 전략은 D가 초평가주의적 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이라는 것과 전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초참을 대신해 지역적 참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적 참은 D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진술 ϕ가 w_n에서 지역적 참이라는 것은 ϕ가 w_n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참이라는 것이다.[34] 그래서 $D\phi$ 역시 새롭게 정의된다. $D\phi$가 w_n에서 지역적 참이라는 것은 w_n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지역적 참이라는 것이다. 코브레로스는 이러한 지역적 참을 보존하는 지역적 타당성(regional validity)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35]

34) 코브레로스는 '접근가능성'이라는 용어 대신 'P-admitte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 Cobreros (2011a), p. 840.

35) Cobreros (2011a), p. 840.

> 어떤 진술 ϕ가 진술들의 집합 Γ의 지역적 귀결(regional consequence)이다($\Gamma \vDash_r \phi$). iff 모든 해석과 모든 w에서, Γ에 속한 모든 진술이 w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참이라면, ϕ 역시 w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참이다.

지역적 타당성에 근거하면 D-도입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래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ϕ가 w_n에서 지역적으로 참이라는 것이 ϕ가 w_n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지역적 참이라는 것, 즉 Dϕ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코브레로스가 제시한 아래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ϕ가 w_1에서 지역적으로 참이지만, w_1에서 접근가능한 w_2에서는 지역적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36)]

$$
\begin{array}{ccccc}
w_1 & \rightarrow & w_2 & \rightarrow & w_3 \\
 & & & & \\
\varphi & & \varphi & & \neg\varphi
\end{array}
$$

그러나 지역적 참에 의존하는 코브레로스의 주장은 초평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초평가주의가 w에서의 의미론적 평가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언어 L에 적용되는 진리값, 즉 L 자체의 진리값이다. 그러나 코브레로스가 제시하는 지역적 참은 w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예컨대, 위의 모형에서 ϕ는 w_1에서는 지역적 참이지만 w_2에서는 지역적 참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적 참은 ϕ 자체에 적용되는 진리 개념이 아니다.

---

36) 위의 모형은 접근가능성이 추이적(transitive)이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화살표는 접근가능성을 표시한다. Cobreros (2011a), p. 841.

물론 w를 언어 L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지 않고, 언어 L 자체가 다양한 언어들의 집합, 즉 w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미론적 평가의 최종 목적은 L에 적용되는 진리값, 즉 ϕ의 값이다. 그래서 지역적 참을 도입하는 것은, 한 진술이 참이라는 것은 그것이 허용가능한 모든 명료화에서의 참이라는 초평가주의의 기본적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다.[37] 이것은 초평가주의를 떠나서도 성립한다. 모호한 용어에 대해서는 고전적 의미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은 "철수는 대머리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다른 진리값을 갖는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답은 '대머리'에 대한 각각의 명료화에서의 값이 아니라, "철수는 대머리이다."라는 진술 자체의 값이어야 한다. 그래서 코브레로스의 주장이 매우 흥미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초평가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을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참과 같은 초평가주의의 기본적 전제를 변경하는 거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국지적 타당성 역시 초평가주의에서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전체적 타당성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D-도입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D-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전적 타당성에 대응하는 전체적 타당성이 다양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적으로는 동치인 아래 A, B, C, D에 대응하는 초평가주의의 전체적 타당성들 사이에는 동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38]

---

37) 파라도 유사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Fara (2011), pp. 239-241.

38) A, B, C, D를 국지적 타당성으로 번역했을 경우, 고전성을 보존하는 국지적 타당성의 특성 때문에 A, B, C, D에 대응하는 국지적 타당성들은 모두 동치이다. 그리고 3장에서의 전체적 타당성에 대한 정의는 A에 기초한 것이

A: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B: 결론이 거짓이면, 전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다.
C: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거짓이 아니다.
D: 결론이 참이 아니면, 전제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다.

위의 정의들에 대응하는 전체적 타당성들 사이의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가율을 부정하는 초평가주의의 특성에 기인한다. 초평가주의에서 ϕ가 초참이 아니라는 것이 ϕ가 초거짓임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A와 B 사이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B에 대응하는 전체적 타당성 B는, 결론이 초거짓인 경우 전제들 중 하나는 반드시 초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 타당성 B에서는 전체적 타당성 A에서 성립하는 D-도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ϕ가 초참도 아니고 초거짓도 아닌 경우, Dϕ는 초거짓이기 때문이다.[39]

타당성을 진리값의 필연적 보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의 정의들은 고전논리학에서는 모두 동치인 것들이며, 그래서 전체적 타당성 B를 선택하는 것은 타당성 개념 자체의 다양성과 관련된 논리적 다원주의(logical pluralism)와는 다른 문제이다. 또한 오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문맥에서는, 결론이 거짓이면 전제들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라는 B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40] 즉 참의 보존과 함께 거짓의 회피 역시 타당성에 대한 중요한 직관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국지적 타당성에도 유사하게

다.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개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Varzi (2007)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D-도입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위에서는 결론이 하나인 논증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Varzi (2007), pp. 640-648.

39) Varzi (2007), p. 642.

40) 이러한 주장은 키프(Keef)에 의해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Varzi (2007), p. 666. 참조.

적용된다. 전체적 타당성 A와 국지적 타당성 A는 모두 참의 필연적 보존이라는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 직관을 국지적 참과 초참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w에서의 참의 보존인 국지적 타당성과 초참의 보존인 전체적 타당성은 모두 전제가 참인 경우 결론 역시 반드시 참이라는 고전적 타당성의 초평가주의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초평가주의에는 고전논리학의 타당성 개념에 대응하는 다양한 타당성 개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타당성 개념 자체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고전논리학의 타당성 개념에 대응하는 다양한 타당성 개념들 중 중 초평가주의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합성과 관련해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 의미론에 부합하는 표준적 타당성임을 보인 후, 국지적 타당성에 근거해서도 초참의 보존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전략은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의 다양성 뿐 아니라 초참 및 D와 관련된 의미론적 특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초평가주의의 참은 초참이며, 초참은 모든 w에서의 참으로, 기본적으로 외연적 혹은 외재적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의미론적 간극과 고차모호성을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D는 w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그래서 초평가주의에서의 타당성은 이러한 상이한 의미론적 성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 타당성은 D를 포함한 w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초참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그래서 전체적 타당성도 국지적 타당성도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인다.[41]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다음 장에

41) 코브레로스의 전략 역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전략을 타당성은 초참의 보존임을 받아들이면서 초참을 w들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 정의해서, 국지적 타당성의 단점과 전체적

서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에 가장 적합한 표준적 타당성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초참을 나타내는 새로운 연산자 **T**를 도입해서 초참의 보존 역시 국지적 타당성에 의해 포착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딜레마와 함께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윌리엄슨의 반례나 파라의 역설을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 타당성 B에 필자가 의존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록 전체적 타당성 B가 D-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초참과 관련된 추론적 역할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며, 그래서 타당성 A와 마찬가지로 초평가주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해서, 타당성과 관련한 기본적 직관은 여전히 참의 필연적 보존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자는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 A에 한정해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체적 타당성'은 '전체적 타당성 A'를 의미한다.

6. 의미론적 적합성과 초참의 보존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은 모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특히 초평가주의에서의 참은 초참이며, 초참은 모든 명료화에서 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기본 가정을 유지하면서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임을 보일 것이다.

전체적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초평가주의에서의 참은 초참이므로 타당성 역시 초참의 필연적 보존을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특징은 D-도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초평가주의에서의 참이 초참이어서 논리적

타당성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초참이라면, 우리는 ϕ가 모든 w에서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Dϕ가 모든 w에서 참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제시한 아래와 같은 추론규칙을 얻을 수 있다.

D1: $\phi \vDash_g D\phi$, $D\phi \vDash_g \phi$

물론 그렇다고 'D'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D1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ϕ와 Dϕ 사이의 동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42]

D2: ϕ iff Dϕ

그리고 D1과 D2의 불일치, 즉 D2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1, 특히 D-도입이 성립하는 것이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임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D1과 D2의 불일치 자체가 전체적 타당성을 거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D2와 같은 동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1과 같은 추론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초평가주의에서 그리 특이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평가주의에서 타르스키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것이 초평가주의에 대한 윌리엄슨의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이다.[43] 즉 D2와 D1의 불일치와 유사한 현상이 초참과 관련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윌리엄슨의 비판에 대한 초평가주의자들의 대응은, D2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D1은 성립하듯이, 타르스키 등식이 성

42) ϕ가 초참도 초거짓도 아닌 경우, Dϕ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43) Williamson (1994), p. 162.

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과 관련된 기본적 추론은 성립한다는 것이다.[44] 즉 ‘ϕ’와 ‘ϕ는 참이다’가 동치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ϕ로부터 ϕ가 참임을 추론할 수 있고 ϕ가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ϕ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르스키 등식으로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은 이러한 추론을 통해 보존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의미론적 간극을 인정하는 모든 초평가주의자들이 공유하는 혹은 공유해야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D’ 대신 초참을 나타내는 ‘**T**’를 사용한 아래의 식들 중 T2가 아니라 T1이 성립한다는 것은 참을 초참으로 정의하는 것과 함께 초평가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45)]

T1: $\phi \vDash \mathbf{T}\phi,\ \mathbf{T}\phi \vDash \phi$
T2: ϕ iff $\mathbf{T}\phi$

타르스키 등식을 받아들이면 배중률이 이가율을 함축한다는 윌리엄슨의 주장에서 보이듯, T2와 배중률을 받아들이면 이가율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46] 그래서 T2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평가주

44) Varzi (2007), p. 668.

45) 초참을 나타내는 **T**는 “$\mathbf{T}\phi$가 w_n에서 참이다 iff ϕ가 모든 w에서 참이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식에 나타난 **T**는 기본적으로 초평가주의의 대상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타당성 개념이 아닌 ‘⊨’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필자는 국지적 타당성에 기초해서 전체적 타당성을 정의하기 위해 바르찌가 그랬던 것처럼 **T**를 새로운 연산자로 도입할 것이다. Varzi (2007), pp. 664-665.

46) 윌리엄슨의 증명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초평가주의에서 배중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mathbf{T}(\phi \vee \neg\phi)$’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타르스키 등식을 받아들이면 ‘ϕ iff $\mathbf{T}(\phi)$’와 ‘¬ϕ iff $\mathbf{T}(\neg\phi)$’가 성립하는데, 이들로부터 ‘$\mathbf{T}(\phi) \vee \mathbf{T}(\neg\phi)$’가 정당화되며 이것은 곧 ϕ가 초참이나 초거짓 둘 중의 하나의 진리값을 갖는다는 이가율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mathbf{T}(\neg\phi)$가 ϕ가 초거짓임을

의의 중요한 특징인 이가율의 부정과 배중율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정인 반면, T1은 진리 개념이 만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직관이라고 할 수 있다.[47] 즉 ϕ와 **T**ϕ가 동치관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T1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T1이 성립하지만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T1의 '$\phi \vDash \mathbf{T}\phi$'는 성립하지 않는다.[48]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이다. 즉 국지적 타당성에 근거해서는 참에 관한 최소한의 직관인 T1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지적 타당성에 대한 이러한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는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에 대한 선택 기준, 즉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 사이의 선택의 기준은 초평가주의 의미론과의 적합성, 초참의 보존,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T1의 유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전체적 타당성은 의미론적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국지적 타당성은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에 반해,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초참의 보존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T1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나 초참을 나타내는 **T**를 새로운 연산자로 도입할 경우, 우리는 국지적 타당성에 근거해서도 초참의 보존을 포착할 수

함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mathbf{T}(\phi) \vee \mathbf{T}(\neg\phi)$'가 성립한다는 것만으로도 윌리엄슨의 증명은 충분한 위력을 발휘한다. Williamson (1994), pp. 162.

47) 초평가주의에서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은 초참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ϕ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초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ϕ가 초참임을 받아들이면 ϕ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초평가주의에서도 보존되어야 하는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이라는 것이다.

48) ϕ가 w에서 참이라는 것이 ϕ가 초참, 즉 모든 w에서 참임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위의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있을 뿐 아니라 T1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 역시 국지적 타당성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T1의 '$\phi \vDash$ **T**ϕ'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은 ϕ를 받아들이면 ϕ가 초참이라는 것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평가주에서의 표준적 참은 초참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받아들인다'는 '초참임을 받아들인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위의 식은 "ϕ가 초참이다."와 "ϕ가 초참이라는 것이 초참이다."라는 주장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초참'과 관련된 주장이다.[49] 그렇지만, **T**를 새로운 연산자로 도입하면 '**T**$\phi \vDash_1$ **TT**ϕ'을 통해 국지적 타당성에서도 위의 직관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T**에 의존해서 우리는 전체적 타당성을 국지적 타당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타당성이 아니라 국지적 타당성이 의미론적 적합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 타당성과 국지적 타당성의 차이는 주로 D와 관련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의미론적 적합성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D의 의미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D는 특정한 w에서의 접근가능성에 의해 정의된다. 그런데 타당성을 초참의 보존인 전체적 타당성으로 이해하면 D와 관련된 추론에서 그것의 핵심적 요소인 '접근가능성'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Dϕ가 초참이라는 것은 허용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임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ϕ가 초참이라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ϕ가 참인 w_n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Dϕ는 w_n에서 참인데, 이러한 Dϕ가 초참이라는 것은 모든 w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곧 모든 w에서 ϕ가

49) 필자의 초고에서 '$\phi \vDash$ **T**ϕ'에 대한 설명의 혼란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참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50] 그리고 이것이 '$\phi \vDash_g D\phi$'이 성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초참의 보존만을 포착하는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ϕ와 $D\phi$가 갖는 추론적 역할이 동일해지며 그래서 '$\phi \vDash_g D\phi$'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D와 관련된 추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D의 특징 중 하나인 '접근가능성'을 그것과 관련된 추론에서 무력화하는 것이다. $D\phi$가 초참이라는 것은 결국 ϕ가 모든 w에서 참임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w들 사이의 접근가능성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근가능성'은 D에서 제거될 수 없는 정의적 특성이다. w_1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이지만 w_2에서 접근가능한 어떤 w에서 ϕ가 거짓이면, 앞에서 제시한 D에 대한 정의에 따라, $D\phi$는 w_1에서는 참이지만 w_2에서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D에 대한 정의에서 '접근가능성'을 제거하면, $D\phi$가 w_n에서 참이라는 것은 ϕ가 모든 w에서 참이라는 주장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경우, D는 명실상부한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D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D의 표준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계영역과 관련해서 초평가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접근가능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D\phi$가 w_n에서 참이라는 것은 모든 w에서 ϕ가 참임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DD\phi$ 역시 참이기 때문에 '$D\phi \rightarrow DD\phi$'가 성립한다. 그런데 '$D\phi \rightarrow DD\phi$'이 성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고차모호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일뿐더러, 이러한 의미론적 평가에 의존하면 '약한 유클리드적 원리'라고 불리는 '$B\phi \rightarrow DB\phi$' 역시 성립한다.[51]

---

50) 각주 17)에서 말한 것처럼, '허용가능성'은 모든 w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이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였다.

51) 위에서 언급한 '$D\phi \rightarrow DD\phi$'과 약한 유크리드적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체적 타당성 및 국지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독립적으로 이 두 원리가 모두 초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D\phi \rightarrow DD\phi$'과 고차모호성은 양

접근가능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Dϕ가 w_n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ϕ가 거짓인 w가 하나이상 존재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Dϕ →D¬Dϕ'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식을 경계영역 B에 대한 정의인 '¬Dϕ ∧ ¬D¬ϕ'에 적용하면, Bϕ이면 DBϕ라는 주장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약한 유크리드적 원리는 경계자체가 흐릿함, 즉 경계영역 자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대표되는 모호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위반하는 것일뿐더러, 경계영역의 경계영역으로 정의되는 고차모호성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의미론적 간극과 고차모호성을 모두 인정하는 초평가주의에서 약한 유크리드적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D에서 '접근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하였듯, D는 초참과는 달리 w에 따라서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것의 기본적 의미로 포함하며, 그러한 진리값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접근가능성'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52]

더구나 '접근가능성'은 경계영역에 대한 초평가주의적 설명에서

립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의 주장은 이러한 'Dϕ→DDϕ'과 고차모호성의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초평가주의 의미론에서 '접근가능성'을 제거하면 경계영역 자체가 모호하다는 모호성에 대한 직관과 경계영역의 경계영역으로 정의되는 고차모호성에 대한 기본적 직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Dϕ→DDϕ'과 고차모호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Bobzien (2012) Williamson (1994), p. 159 참조. 약한 유크리드적 원리에 대해서는 Fara (2011), p. 230 참조.

52) 물론 이러한 D와 초참의 구분이, 초평가주의에서 초참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코브레로스 모형의 ϕ를 $P(a_k)$이라고 할 경우 $DP(a_k)$은 w_1과 w_2에서는 참이지만 w_3에서는 거짓이다. 따라서 이 경우 $P(a_k)$뿐 아니라 $DP(a_k)$ 역시 초참도 초거짓도 아닌 미결정이며, 그래서 이러한 a_k는 '¬DP(x) ∧ ¬D¬P(x)'를 만족하는 경계영역에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를 초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가율을 인정하지 않는 초평가주의의 의미론적 특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D와 초참을 통해 경계영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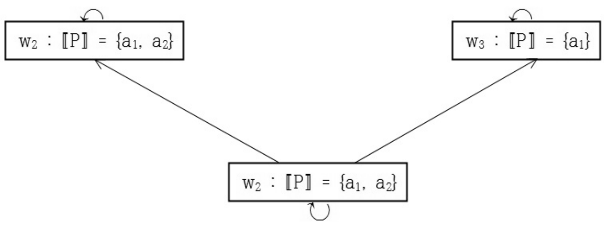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초평가주의는 의미론적 간극을 그것의 허용가능한 명료화인 w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허용가능성'과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모호한 용어 P가 분명하게 적용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모든 w에서의 P의 적용 범위는 동일하다. 그래서 명료화란 모호한 용어 P의 적용 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한 것, 즉 의미론적 간극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들은 P의 경계영역에 임의의 절단점들을 설정한 것으로, 초평가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경계영역에 속한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Dϕ가 w_1에서 참이고 w_2에서는 거짓이서 초참도 초거짓도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ϕ가 w_1에서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w_1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w_1이 P의 경계영역에 임의의 절단점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w_1에서 P가 포함된 Dϕ가 참임을 받아들이면 w_1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의 P의 적용범위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D의 특성에 의해서 Dϕ와 DD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코브레로스의 모형에서 ϕ는 w_1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참이기 때문에 Dϕ는 w_1에서 참이다. 그러나 DDϕ가 w_n에서 참이기 위해서는 w_n으로부터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Dϕ가 참이어야 한다. 그런데 코브레로스 모형의 w_1에서 접근가능한 w_2에서 Dϕ가 거짓이기 때문에 w_1에서 Dϕ는 참인 반면 DDϕ는 거짓이다. 그리고 이러한 Dϕ와 DDϕ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 요소 역시 '접근가능성'이다. 그런데 w들 사이의 접근가능성에 기초하는 이러한 D의 특징은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포착할 수 없다.

국지적 타당성이 이러한 D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이유는 각 w에서의 참의 보존인 국지적 타당성의 특성에 기인한다. 국지적

타당성은 전제가 참인 모든 w에서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추론이 국지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w에서의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추적되어야 하며, 이러한 w에서의 추론에서 접근가능성을 포함한 D의 의미론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점 역시 코브레로스의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모형에서는 w_1과 그것으로부터 접근가능한 w_2에서는 ϕ가 참이지만, w_2로부터 접근가능한 w_3에서 ϕ는 거짓이다. 그리고 이것이 ‘$\phi \vDash_l D\phi$’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다. w_1에서는 ϕ와 Dϕ가 모두 참이지만, w_2에서는 ϕ는 참이지만 Dϕ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근가능성’을 무력화한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D의 이러한 특성을 포착할 수 없다. Dϕ가 초참이라는 것은 모든 w에서 ϕ가 참임을 의미하므로, ϕ가 초참이면서 Dϕ가 초참이 아닌 경우는 없으며, 그래서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w_1과 w_2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phi \vDash_g D\phi$’는 성립한다.

물론 위의 주장은 추이적(transitive)이지 않은 코브레로스의 모형에 기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와 관련된 논의에서 재귀성(reflexive)이 최소한의 가정이지만, 필자의 논의는 추이적이지 않은 코브레로스의 모형뿐 아니라 비추이성을 전제하지 않은 아래 모형에서도 성립한다. 데버(Dever) 등이 제시한 이모형은 세 개의 w로 구성되며, 일항용어 P는 w_1과 w_2에서 a_1과 a_2에 적용되지만 w_3에서는 a_1에만 적용된다.53)



53) Asher, Dever, Pappas (2009), p. 924.

위의 모형에서 $P(a_1)$인 w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w에서 $P(a_1)$이 참이기 때문에 ‘$P(a_1) \vDash_1 DP(a_1)$’은 성립하는 반면, $P(a_2)$인 w에서 접근가능한 w들 중 w_3에서는 $P(a_2)$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P(a_2) \vDash_1 DP(a_2)$’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w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전체적 타당성에서는 ‘$P(a_1) \vDash_g DP(a_1)$’뿐 아니라 ‘$P(a_2) \vDash_g DP(a_2)$’ 역시 성립한다. 그래서 전체적 타당성에 의존할 경우, D의 추론적 역할은 그것의 의미론적 역할과 무관하게 초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뿐임을 위의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 타당성은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핵심적 요소인 D의 의미를 추론에서는 사실상 제거하는 것일 뿐더러, 경계영역에 속한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론 역시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국지적 타당성에서는 ‘접근가능성’을 포함한 D의 의미론적 특성이 포착되며, w들에 따라 의미론적 값이 달라지는 특성 역시 포착된다. 그래서 국지적 타당성이 w에서의 평가에 의존하는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초평가주의에서의 타당성은 초평가주의의 의미론, 특히 D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론에 부합하는 것이 국지적 타당성이라는 것이다.[54]

---

54) 국지적 타당성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 중 하나는 최근 윌리엄스(Williams)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윌리엄스는 국지적 타당성이 지나치게 고전적이어서, 더미의 역설에 대한 고전적 설명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하였듯, 국지적 타당성을 받아들이면 용어 P에 대해 더미의 역설의 관계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나열 $a_1, a_2, \ldots a_n$과 관련해서 아래의 논증은 성립한다.

$$P(a_1), \neg P(a_n) \vDash_1 (P(a_1) \wedge \neg P(a_2)), (P(a_2) \wedge \neg P(a_3)), \ldots (P(a_{n-1}) \wedge \neg P(a_n))$$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이 논증의 결론들은 동시에 참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논증이 국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특정한 절단점의 존재를 함의하고 그래서 더미의 역설에 대한 고전적 설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임은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

그러나 초평가주의적 타당성이 초참과 관련된 추론을 포착할 수 없다면 이 역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초참의 보존은 국지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서 제시한 D-도입과 관련된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D-도입 자체가 D의 의미에서 '접근가능성'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에서 제기한 전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 타당성과 국지적 타당성의 차이는 모든 w에서의 국지적 참의 보존과 초참의 보존이다. 따라서 바르찌가 제시한 것처럼 우리는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 **T**를 이용해서 전체적 타당성을 국지적 타당성에 의해 아래와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55)]

$$\Gamma \vDash_g \phi \text{ iff } \{\mathbf{T}\psi\text{: } \psi \in \Gamma\} \vDash_l \mathbf{T}\phi$$

위의 정의는 '초참'을 나타내는 **T**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러한 **T**는 "허용가능한 모든 w에서 ϕ가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w_n에서 **T**ϕ는 참이다."로 정의된다. 그래서 **T**ϕ가 w_n에서 참이라는 것

다. 데버 등이 주장하듯이, 결론이 다수인 위의 논증에서 메타적 선언, 즉 "결론들 중 하나는 참이다."에 사용되는 선언 역시 초평가주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지적 타당성에서 결론들 중 하나가 참이라는 것은, 결론들 중 특정한 어떤 것이 초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참인 각각의 w에서 결론들 중 하나가 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논증을 받아들이면서도 a_1, a_2, … , a_n 각각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단점임을 부정할 수 있다. 부연하면, 전제가 초참인 경우 결론들 중 하나가 초참이라는 전체적 타당성과는 달리 국지적 타당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결론들 중 하나가 초참임은 함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논증은 전체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Williams (2008), pp. 197-200, Asher, Dever, Pappas (2009), p. 921 참조.

55) 위의 식은 바르찌가 제시한 것을 결론이 하나인 논증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환원이 데버 등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Asher, Dever, Pappas (2009), p. 927, Varzi (2007), p. 665.

은 곧 **T**ϕ가 모든 w에서 참 즉 초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T**에 의존하면, '**T**$\phi \vDash_l$ **T**ψ'가 성립하는 경우 '$\phi \vDash_g \psi$'가 성립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T**라는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해서 초참과 관련된 추론을 국지적 타당성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위의 식은 전체적 타당성을 국지적 타당성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원 자체는 초평가주의에서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초평가주의에서의 타당성 개념의 선택은 고전적 타당성 개념에 대응하는 초평가주의적 타당성 개념들 중 하나를 표준적 타당성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징은 국지적 참에 의해 초참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참의 보존인 전체적 타당성을 국지적 참의 보존인 국지적 타당성에 의해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초평가주의 의미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환원에서 특이한 것은 초참을 나타내는 **T**를 새로운 연산자로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T**는 국지적 참에 의해 초참의 보존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국지적 타당성과 전체적 타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T**는 전체적 타당성을 제한하기 위한, 즉 국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전체적 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역할 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제시된 **T**에 대한 정의는 w에 기초하는 초평가주의의 의미론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T**를 도입하는 것이 초평가주의의 기본 틀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T**와 바르찌 등식에 의존할 경우 우리는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을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르스키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초평가주의에서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은 T1, 즉 '$\phi \vDash$ **T**ϕ'와 '**T**$\phi \vDash \phi$'에 의해 설명된다. 그런데 T1

의 '$\phi \vDash \mathbf{T}\phi$'은 국지적 타당성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각 w들에 기초하는 국지적 타당성의 특성 상, ϕ가 w_n에서 참이라는 것이 모든 w에서 ϕ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phi \vDash \mathbf{T}\phi$'에 대한 초평가주의적 해석은 ϕ가 초참임을 받아들이면 ϕ가 초참임이 초참이라는 것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ϕ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ϕ가 초참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 타당성에서 T1이 성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phi \vDash_g \mathbf{T}\phi$'가 성립하는 이유는 ϕ가 초참이라면 $\mathbf{T}\phi$ 역시 초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직관은 '$\mathbf{T}\phi \vDash_l \mathbf{TT}\phi$'에 의해 국지적으로도 포착될 수 있다. 초참의 대상언어적 표현인 $\mathbf{T}$는 추이적이므로 '$\mathbf{T}\phi \vDash_l \mathbf{TT}\phi$'가 성립하는데, 위에서 제시한 바르찌 등식을 이용하면 이것은 곧 '$\phi \vDash_g \mathbf{T}\phi$'과 동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mathbf{T}\phi \vDash \phi$'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은 '$\mathbf{T}\phi \vDash_l \mathbf{TT}\phi$'와 '$\mathbf{TT}\phi \vDash_l \mathbf{T}\phi$'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국지적 타당성이 w에서의 고전적 평가에 기초하는 초평가주의 의미론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적 타당성 개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국지적 타당성에 기초해서 전체적 타당성을 정의하고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을 보존할 수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초평가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 즉 국지적 타당성에 의존해서 전체적 타당성을 정의하기 위해 $\mathbf{T}$를 새로운 연산자로 도입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의 근거인 D-도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7. 결론

필자는 이 글에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에 대응하는 초평가주의적 전략으로 국지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주요 논거는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의존하는 전체적 타당성은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지적 타당성을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 개념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국지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초참의 보존을 설명하였다.

물론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과 관련해서 D나 의미론적 간극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모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은 초평가주의 자체에 대해서 그리 결정적인 반박은 되지 못한다. '초참'과 같은 초평가주의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수정 없이 국지적 타당성에만 의존해도 윌리엄슨과 파라의 역설이 성립하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지적 타당성은 윌리엄슨의 반례나 파라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가 아니라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 개념이다. 그래서 초평가주의는 고전논리학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으며, 초평가주의에 기초할 경우 더미 역설을 구성하는 일련의 연쇄에서 명백하게 T인 a_1이 $D^{m-1}T(a_1)$이면서 동시에 $\neg D^{m-1}T(a_1)$이라는 역설이 발생해서 초평가주의에 기초해서는 더미의 역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의 필자의 전략은 초평가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최소 수정으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초평가주의가 단지 윌리엄슨의 반례나 파

라의 역설이 제기한 문제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겉보기와는 달리 초평가주의에 대한 결정적 반박 근거는 아니며,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의 표준적 타당성이라는 것이다.[56]

---

56)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지적 사항 중 많은 것을 본문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필자의 한계 및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제약 사항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지적 사항들은 앞으로의 필자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중요한 보탬이 되는 고마운 의견을 제시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Asher, N., Dever, J., and Pappas, C. (2009), “Spervaluationism Debugged”, *Mind*, 118.472, pp. 901-933.

Bobzien, S. (2012), “If it’s clear, then it’s clear that it’s clear, or is it? Higher-order vagueness and the S4 axiom”, in B. Morison and K. Ierodiakonou (eds.), *Episteme, ect: Essays in Honour of Jonathan Barne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9-212.

Cobreros, P. (2011a), “Varzi on Supervaluationism and Logical Consequence”, *Mind*, 120.479, pp. 833-843.

Cobreros, P. (2011b), “Supervaluationism and Fara's Paradox of Higher-Order Vagueness” in P. Égré and N. Klinedinst (eds.), *Vagueness and Language Use*, Palgrave McMillan, pp. 207-221.

Fara, D. G. (2003), “Gap principles, penumbral consequence, and infinitely higher-order vagueness.” in J. C. Beall (ed.), *Liars and Heaps: New Essays on Paradox*,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5-221.

Fara, D. G. (2011), “Truth in a Region”, in P. Égré and N. Klinedinst (eds.), *Vagueness and Language Use*, Palgrave McMillan, pp. 222-248.

Fine, K. (1975), “Vagueness, Truth and Logic” in Keefe and Smith (1999), pp.119–150.

Keefe, R. (2000), *Theory of Vagu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efe, R and Smith, P (eds.) (1999), *Vagueness: A Reader*, MIT Press.

Varzi, A. C. (2007), “Supervaluationism and Its Logics” *Mind* 116.463, pp. 633-676.

Williams, R. (2008), “Supervaluationism and Logical revisionism”, *Journal of Philosophy*, 105.4, pp. 192-212.

Williamson, T. (1994), *Vagueness*, Routledge.

Williamson, T. (1995), “Definiteness and Knowability”,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33.S1, pp. 171-191.

Wright, C. (1992), “Is Higher-Order Vagueness Coherent”, Analysis, 52.3, pp. 129-139.

Wright, C. (2011), “The Illusion of Higher-Order Vagueness”, in R. Dietz and S. Morruzzi, (eds), *Cut and Clouds*, Oxford University Press, pp. 523-549.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ren-man@hanmail.net

Sorites Paradox and Supervaluationism

Jinhee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Williamson's counterexamples and Fara's paradox do not conclusively refute supervaluationism. I will achieve this purpose on the basis of local validity. In general, people regard supervaluational validity as global validity. And D-introduction, which is premise of Williamson's counterexamples and Fara's paradox, is justified only if we assume global validity. But it cannot correctly grasp supervaluational semantics, especially semantic character of D-operator. So I will show that validity of supervaluationism is local and define global validity by local validity. Strategy of this paper is to protect supervaluationism against Williamson's counterexamples and Fara's paradox by minimal modification of supervaluationism and to prove that supervaluational logic is not revisionary and weak for solving the sorites paradox.

Key Words: Supervaluationism, Sorites paradox, Vagueness, Logical consequence, Fara's paradox, Williamson